



화양구곡이야기

넓게 펼쳐진 반석 위로 맑은 물이 흘러가고, 주변의 울창한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

조선후기 대화자인 우암 총시열이 은거 한 곳으로
관련된 유적이 많으며 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등 수려한
명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 제1곡 경천벽 敬天壁

기암이 가파르게 솟아 기묘한 충암절벽을 이루며 높이 솟은 것이 마치 하늘을 떠받들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제2곡 운영답 運影答

제곡에 맑은 연못이 이루어져 구름 그림자가 맑게 비친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입니다.

■ 제3곡 유흥암 誉宮

회고 둥글넓적한 바위에서 송시열이 효종의
승하를 슬퍼하여 이 바위에서 통곡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4곡 금사닭 金沙鴨

맑은 연못 속에 비치는 모래알들이 마치 금가루를 뿐만 놓은 듯하여 유래된 이름입니다.

제5절 청성대

겹쳐있는 바위가 매우 높게 솟아있어 밤하늘을
별들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입니다.

제6곡 능우대

하늘을 우러러 차솟아 있는 장대한 바위 모습이
마치 구름을 맞잡을 수 있다고 전해지며, 또 오래
전에 자금이 늘을 타고 다녔던 걸상은 오래된 이름으로

제2공 외로운 세상

길게 늘어진 듯한 바위가 제곡 옆으로 뻗어 있어
마치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듯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8공학수대 韓國

학이 바위 위에다 걸을 짓고 새끼를 길렀다하여
율대와 아들입니다.

▶ 제2장. 품질 관리

개울가 매끄러운 바위의 넓게 펼쳐진 모습이
무엇인가? 땅에 누운 들판의 옥채들이 이르렀다.

자연관찰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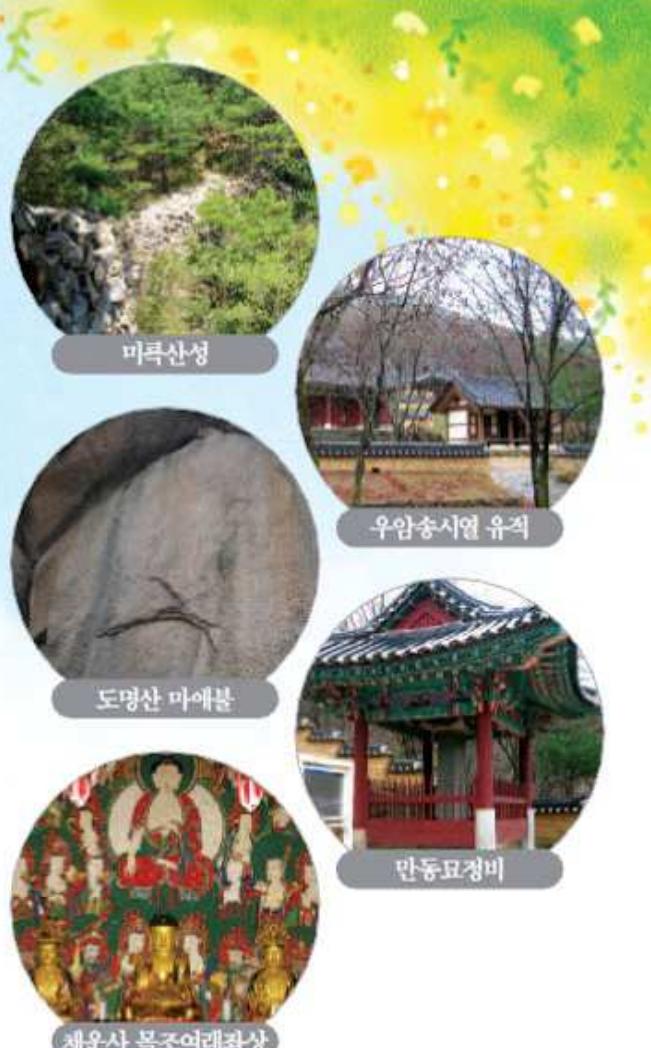
여름



가을



겨울



해설프로그램

화양구곡이야기

장소 : 화양동탐방지원센터

내용 : 자연관찰로, 화양구곡 체험 및 해설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화양동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참가방법 : 전화 · 인터넷 선착순 예약(3일전 예약)

국립공원탐방서비스현장을 이용함으로써 국민모두가 유익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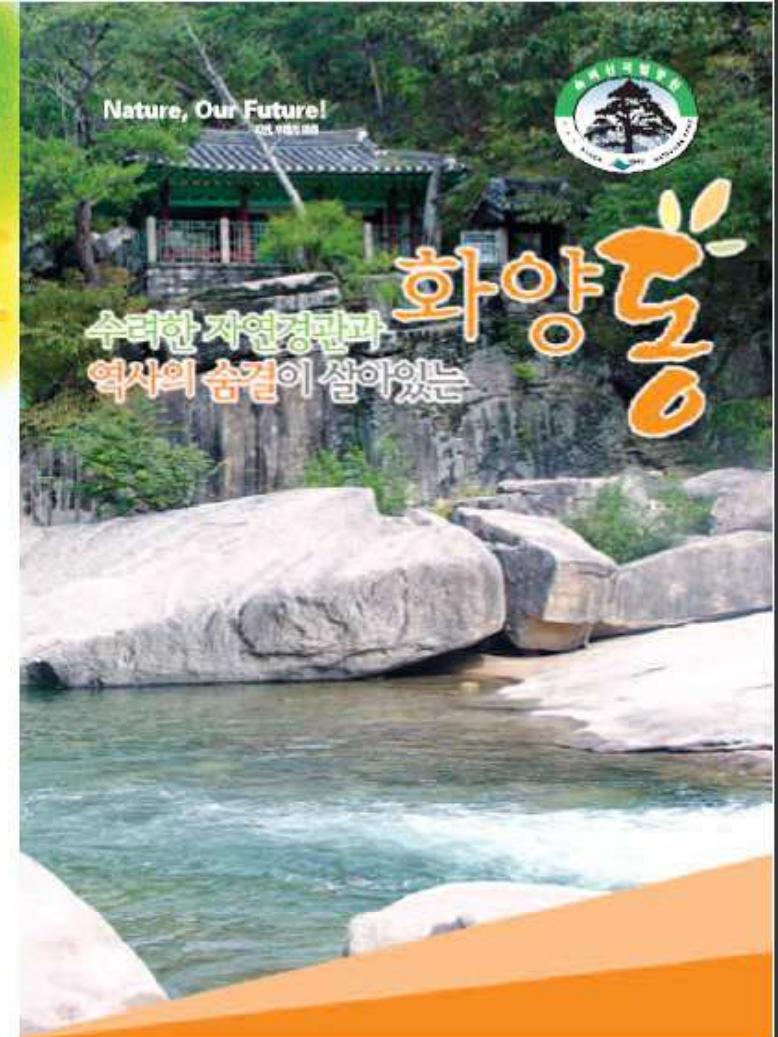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9-1

TEL: 043) 542-5267-9

홈페이지: <http://songnisan.knps.or.kr>

생태관광예약: <http://ecotour.knps.or.kr>



화양동은 속리산국립공원내 화양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양
목이 많아서 黃石隱陽洞동으로 불리다가 효종때(1666년) 우암송시열이
이곳에서 주자학을 연구하면서부터 화양동으로 불리지고 있습니다. 화양
구곡, 선유구곡, 도명산 등의 자연경관과 화양서원, 만동묘, 도명산성,
도명산마애불 등의 역사유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관찰로에서는
탐방객들을 위한 해설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